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	다시 시작할 용기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양	438.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분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새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다함께:	아멘. 주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는 어찌지 못하는 과거에 붙들려 살지 않겠습니다.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점심 비빔밥

- 허수경

교실에는 작은 석유난로가 있었다. 겨울이면 그 난로 옆에 도시락을 두었다. 아침에 도시락을 그렇게 난로 곁에 두면 양은 도시락 속에 든 밥은 학교까지 오느라 찬바람을 맞고도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다. 사학년 땀가,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도시락 반찬으로 아이들 집안의 빈부가 가늠질되는 게 보기 좋지 않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밥하고 가져온 반찬하고 큰 양동이에 부어 같이 비벼 먹자.” 모두 도시락을 내어놓았고 가지고 온 반찬도 함께 양동이에 부었다. 비벼서 서로 나누어 먹었다. 비빔밥을 먹다보면 선생님 생각이 난다. 굶는 아이들을 위해 도시락 다섯 개를 가져오셔서 양동이에 붓던 처녀 선생님.

▪ 현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현금

곽새롬 곽정자 구재원 국지연 권미숙 권 순 김기철 김명하 오형일 김성아
 김승현 김수진a김영미 김용진 박효선 김은옥 김일재 김정훈 이진영a김종성b
 서이순 김지훈 김진우 임미진 김창숙 김은종 김철수 유영남 김태정 문금석
 박기영 박미희 박연주 박영희 박재영 이현정 박해남 백성래 서동우 서정순
 서해나 손연우 송남필 송정근 이소선 신동완 신문희 심창현 안미순 오슬기
 오자영 오재형 임고운 오진훈 노순옥 우경환 원용일 최현선 유경주 이수자
 이순용 김신실 이영미 이응석 이은경 이종후 이주영 오재영 이주은 류건형
 이한림 김명희a이호원 임성택 홍순위 임승동 백혜숙 장현희 정연경 조호진
 최승주 최 현 현 진

감사현금

권혁래 김명하 오형일 김반야 김용진 박효선 김인석 이선화 김일재 김준호
 김형욱 서원숙 신윤섭 신승인 안민호 우윤석 윤선호 이상도 이성범 권현숙
 이우경 이은옥 임영선 전근우 채일석 최형민 최혜정 무명3

녹색꿈현금

윤미경 수진 정효진 무명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설날 가정 예배 ■

<가급적 설날 아침에 온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이 때 가족 중에 믿음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예배로의 초대 인도자

설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시 1:1~3 다 함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찬 송 66. 다 감사드리네 다 함께

교 독 93. 새해(1) 다 함께

기 도 가족 중

성 경 봉 독 골 3:8~11 인도자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훼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 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말 씬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가족 중

찬 송 552. 아침 해가 돋을 때 다 함께

주님의 기도 다 함께

<함께 나눌 말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기해년 설을 맞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정을 서로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에도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 주님께 드릴 고백은 감사뿐입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모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느 때처럼 무심하게 또다시 돌아온 명절 같지만, 사실 세상 그 어느 것도 당연하게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2019년이라는 시간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뜻밖의 선물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물을 받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이걸로 도대체 뭘 할까,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시간이란 선물은, 우리에게 과거의 기억을 넘어서서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해줍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부끄럽고 속상한 기억들에 아직 발목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로부터 성큼 빠져나와서, 훨씬 성숙하고 멋진 ‘우리’의 새 모습을 그려 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옛 사람의 거짓되고 부끄러운 모습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갱신하는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새로 무언가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을 만드셨고, 이들 사이의 선한 관계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참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우리도 세상 가운데 거짓과 분열과 혼돈을 폐하고, 참됨과 착함과 아름다움을 새로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곁에 있는 식구의 마음속에, 학교와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의 삶 속에, 길에서 만나는 낯선 이의 발걸음 속에, 그리고 함께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전하는 이가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선한 말로, 우리의 손을 움직여 선한 행실로, 지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참 좋습니다’라고 미소 지을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모두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